

플립 러닝을 활용한 수준별 영어 다독 수업모형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Extensive Reading Class Model with Graded Readers' Series Based on Flipped-Learning

전 영 주
목원대학교

Jeon Young-Joo
Mokwon Univ.

요약

수업시간에 강의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하는 방식은 더 이상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이끌지 못하고,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의 적극적 상호작용이, 집에서 인터넷 환경을 통한 핵심 강의식 내용을 미리 듣고 수업 활동에 임하는 플립러닝에 대한 영어과 수업의 도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영어수업(독해중심)에서의 플립러닝 활용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 후 수정 보완하여 대학 영어수업에서의 플립러닝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한다.

I. 서론

본 ‘플립 러닝을 활용한 수준별 영어 다독 수업모형 연구’는 최근 중등과 대학의 일부 과목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플립드 러닝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영어과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본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영어읽기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플립드 러닝에 대한 깊이 있는 선행연구 분석이 될 뿐 아니라, 영어과 최초의 중등과 대학에서 적용 가능한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영어 읽기 수업 모형 개발’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어 다독(Extensive Reading; ER)

‘영어읽기’는 영어의 4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하나의 영역이다.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 영어 문해력(English Literacy)을 발달시키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기존 영어 읽기 교육의 맹점을 짚어 보아야 한다.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영어읽기 교육은 주로 정독을 통한 영어독해 수업이었다. 교과서를 해석하거나 주어진 지문을 풀기위한 지문 번역이 영어읽기로 알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읽기는 결코 번역이 아니며, 전체의 숲을 파악하며 읽기 활동의 목적만 이루면서 즐겁게 읽으면 되는 빠른 읽기, 속독을 포함한 다독(Extensive Reading)이어야 함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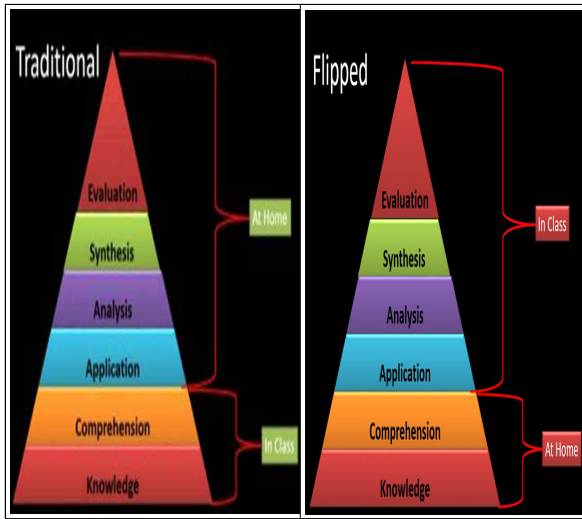
다음은 영어읽기 교육에서의 다독(Extensive Reading)의 긍정적 영향들이다. 첫째, 자연스러운 문맥에

서 만나는 언어를 통해 교과서 내용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 상황도 볼 수 있다. 둘째, 어휘력이 향상된다. 다독은 수천 개의 단어와 어휘의 형태들을 자주 반복해서 접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음에 나올 어휘와 문법을 예측하고 숙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속독 능력과 이해력이 증진된다. 빠르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언어를 처리하게 하므로, 읽는 동시에 다른 것들을 위한 생각의 공간을 갖게 한다. 넷째, 자신감, 동기, 읽는 즐거움은 학생들을 좀 더 효율적인 언어 사용자로 만들어 학습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줄여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섯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를 많이 듣고 읽는 과정은 바람직한 학습 습관을 길러 준다. 여섯째, 문맥에서 나타나는 문법에 대한 감각을 키워준다.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법은 그 용례가 다양하지 못하지만 영어다독은 다양한 상황과 문맥에 문법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패턴을 익히고 깊은 이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한다[1][2].

2.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FL)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역전학습)은 2007년 미국 콜로라도 주 Woodland Park 고등학교 화학교사 Jonathan Bergmann과 Aron Sams가 수업에 빠진 학생들의 보충학습 자료로서 화학 강의를 녹화하여 가정에서 시청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전역과 영어권 국가로 퍼진 새로운 수업 방식을 말한다. 즉 수업 개념은 아주 단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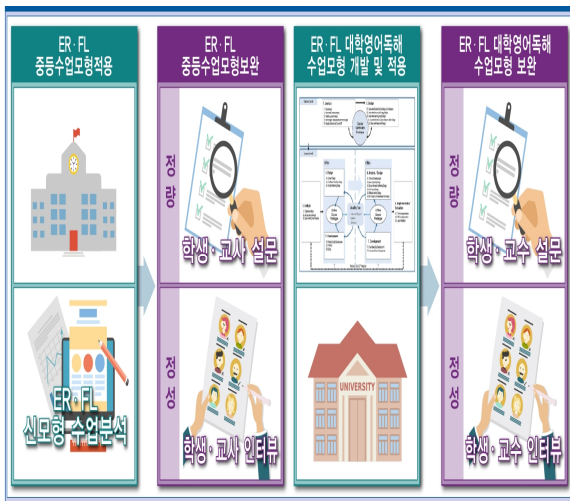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이다. 원래 교실에서 이루어지던 강의식 수업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보도록 하고, 교실에서는 강의 대신 다양한 참여 활동으로 재미와 공부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이다. 'Flipped'는 '휙 뒤집다'는 뜻의 영어 단어 '플립트'(flipped)에서 유래 했다.



▶▶ 그림 1. 기존의 교육방식과 플립드 러닝의 차이

플립러닝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21세기 핵심역량으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 협력(4Cs: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을 들고 있다. 학생들에게 미래교육을 위한 21세기 스킬을 키워 주기 위해 교수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를 고민하는 창의적인 영어수업 모형을 본 연구를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 내용



▶▶ 그림 2.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다독 교육 모형

본 연구는 크게, 수집된 플립 러닝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를 FLN, 즉 플립 러닝과 구성주의 철학에 맞게 분석하고, 올바른 플립 러닝의 방향성과 요건을 분석 연구한다. 연구수업과 일반수업의 관찰과 분석을 플립 러닝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실시하는 분석연구와 더불어, 플립 러닝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개 및 수업에 적용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에게 플립 러닝이 우리나라 영어수업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함께 실시한다. 분석연구는 주로 수업 동영상들을 중심으로 언급한 플립 러닝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업을 관찰,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본 연구자가 기 수행한 FLint, COLT 그리고 TALOS의 틀로 분석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여, 영어과 플립 러닝 수업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플립 러닝을 활용한 영어 독해 수업 모형'을 개발 하고자 한다.

Ⅳ. 연구 결과 및 결론

'플립 러닝을 활용한 수준별 영어 다독 수업모형 개발 연구'이라는 주제 하에, 지방 소재 A대학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수준별 영어 다독 수업 모형 개발 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 탈동기된 학생들에 대한 재동기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영어 원서 독해에 대한 즐거움과 스피드를 즐길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뿐 아니라, 영어 다독을 Flipped Learning과 체험기반 직 소우 모듈활동을 통해 익힘으로써, 21세기 역량 신장과 더불어 디지털 시대와 세계화 시대에 기반 한 영어 독해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1] Nation, P.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 Waring, R. The inescapable case for extensive reading. In A. Cirocki (Ed.), Extensive reading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93-111). Munich, Germany: Lincom, 2009.